

# “학폭 안돼” 춤·음악으로 말해요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폭 예방  
광주교대 정희자 교수 기획  
나주빛누리초서 ‘톡톡 댄싱톡...’  
연극·댄스 등 공연 통해 연대·치유



12일 나주 빛누리초등학교 강당에서 ‘톡톡! 댄싱톡!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주제로 열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랩과 힙합, 샌드에니메이션으로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색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12일 오전 나주빛누리초에서 열린 ‘톡!톡! 댄싱톡!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가 화제의 현장이다. 이날 무대는 뮤지컬과 힙합 등이 어우러져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교대 구성원들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들도 함께했다. 가장 먼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선보였다. 한 학생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지만, 그동안 ‘방관자’에 불과했던 다른 친구가 피해 학생의 손을 잡아준다. 따뜻한 관심과 연대로 학폭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공연의 메시지다. 뮤지컬 중반에는 삶을 끝내려 의자에 올라갔던 피해 학생이 친구의 손을 잡고 내려온다.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학생들은 간단한 라인 배치법 등을 배운 뒤 직접 힙합 가사를 창작했다. 한 학생은 무대에 올라 “Yo Yo, 도망치고싶다. 선생님한테 말할까 아니야, 아는 언니오빠들에게 말할까 아니야”라고 고민섞인 목소리를 들려줬다. 또 다른 학생은 SNS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을 소재로 ‘사이버 폭력은 SNS로 칼을 날리는 상처, 언어폭력은 말로 화살을 날리는 상처’라는 가사를 랩으로 들려줬다.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뻔한 ‘구호’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화’시킨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공연이 끝나면 실제로 두 학교 중 한 곳 쪽로 피해 학생들이 찾아와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곤 합니다” 행사를 기획한 정희자 교수(광주교대 체육교육과)의 말이다. 그의 모습에선 피해 학생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해왔다는 뿌듯함, 예술교육이 갖는 ‘힘’에 대한 믿음 같은 게 느껴졌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학폭’을 소재로 예술교

육을 기획해 전국 500여 개 초·중학교에서 선보여 왔다. 대략 3~4만 명 학생들을 만난 셈이니 이제 “대학보다 초등학교가 더 친숙하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 이번 예술교육은 신안이나 완도 등 문화예술 등에서 비교적 소외를 받아온 지역에서도 진행돼 왔다. 정 교수는 “대도시가 아닌 농촌이나 어촌 등에서 진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기치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에게 전하는 3~4행시 창작, 편지쓰기 등도 진행됐다. 김세운(여·4학년) 학생은 ‘피해자’로 운을 띄우며 “‘피’해자야/ ‘해’로운 괴롭힘을 받고 있었지만 너도/ ‘자’신감을 가져봐 넌 소중한 사람이야”라며 친구들의 공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이화여대 무용과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뉴욕주립대에서 공부했다. 전공을 살려 초기에는 발레 등 순수예술을 매개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러나 점차 꿈나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요

소’를 고민하면서 무용에 컨템포러리한 성격을 가미한 것. 물론 점자 춤과 노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후 힙합 교육 ‘나도 랩퍼다’ 코너를 마련했다. 송다은(여·4학년) 학생은 “공연을 관람하다 보니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학교폭력을 보게 되면 방관하지 않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후 생각 나눔 시간에는 아이들이 저마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학폭, 방관자, 사이버불링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이날 공연을 참관한 광주교대 허승준 총장은 “공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향후 있을 지 모르는 학폭과 잘못된 사회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오늘 같은 예술교육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알라딘 올해의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하루키 6년만의 장편소설... 독자 45만명 참여 한달간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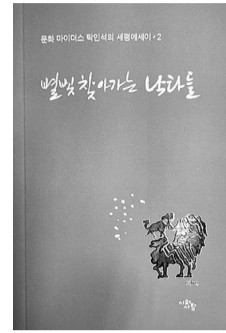
독자들이 뽑은 2023 올해의 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선정됐다고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2일 밝혔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하루키가 6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10대 시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미지의 장소를 방문한 후 그곳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75만부를 돌파한 ‘세이노의 가르침’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만화 붐을 주도한 ‘슬램덩크 리소스’, 야기판다의 일상을 다룬 사진집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책 투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약 45만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단상

탁인석 전 광주문인협회장 에세이집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



“작품 한편 한편이 사막의 낙타들이 별빛을 찾아가는 미션으로 귀결되었다. 캄캄한 사막의 밤에 낙타들이 저마다 ‘인식’의 짐을 싣고 비록 헛되기는 하더라도 죽기 전에 도달해야 할 오아시스를 향해 한발 한발 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광주문인협회장을 역임한 탁인석 작가는 글쓰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사막의 낙타들이 별빛을 찾아가는 미션’은 고행 그 자체이자 포기할 수 없는, 어쩌면 속명과도 같은 여정일 터다. 다소 무겁게 다가오지만 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탁 작가가 세 번째 에세이집 ‘별빛 찾아가는 낙타들’ (시와사람)을 펴냈다. 작가는 “사람은 태어나서 그대로 자식을 남기고 나무를 남기고 책을 남겨야 ‘사람다운’이라는 생각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다”며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며 의미있는 결실을 상징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나 문학이 모든 예술장르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으로 세상을 밝히고 예언한다고 할 때 나 자신의 역할에 숙연해질 때가 있다”며 “내 나름의 역사인식, 사회인식, 문화인식을 다듬으려 노력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지향점이 어떠한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글을 쓰는 효용성을 ‘인간탐구’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허무를 극복하고 그리하여 살아있음의 기쁨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책 곳곳에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의 매개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의 단편이 담겨 있다. 에세이들이 그냥 머리론 쓴 것들이 아닌 간절함에서 비롯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단상이라 할 수 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담론 등이 개진돼 있다. 탁현수 수필가는 “직한 세상, 치한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연민어린 시선”이라고 평했으며 전속 시인은 “그의 에세이는 세상을 밝히고 예언한다는 느낌이다”고 평했다. 한편 탁인석 작가는 1992년 ‘수필과비평’과 ‘문학춘추’로 등단했으며 ‘역사, 미래 그리고 교육’, ‘영시와 비평’ 등을 펴냈다. 광주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광주시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도시 광주’ 현주소와 과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겨울호 발행... 전문가 제언 등 수록

‘문화도시 광주’는 명사화되다시피 이제 보편적인 말이 됐다. 어떤 이는 문화중심도시 광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라고도 말한다. 광주가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도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화도시 광주의 현주소와 오늘의 과제, 이슈 등을 훑어보는 다양한 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문화담론지 ‘창’의 겨울호(통권63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 특집기획은 ‘2023 핫이슈, 문화도시 광주’. 모두 5명의 전문가가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및 정착을 위한 과제’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소회’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상무관 검은비 논란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홍성철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속되고 있는 예술현장의 갑질과 성폭력’ (김화순 화가), ‘지역의 문화협력 가능한가?’ (최성혁 광주청년센터 청년옹원위원)를 제안했다. 이번 호는 김양균 재단 운영위원장의 ‘축복받은 삶’으로 창을 열며, 윤만식 한국민족학협회 고문을 만나 40여년 문화운동 이야기를 들었다. 김상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문의 ‘고



전신화 이야기’를 비롯해 신용주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의 ‘광주와 건축 문화’, 이현제 전 광주동구문화원 초대원장의 ‘회경루’ 등에 대한 진단도 들을 수 있다. 14회 째를 맞이한 ‘광주여성영화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소설 범도’에 대한 리뷰,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의 문화와 광주에 대한 청년의 시선, 김정희 시인의 미국 문화 기행도 만난다. 이기훈 상임이사는 “이번 호에서는 올해 문화도시 광주의 핫 이슈가 되는 면들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들을 수 있다”며 “새해에도 지역 문화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 등을 다채롭게 수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은 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